

전공과목 중국어 원어강의에 대한 기초적 연구

— 전공 학생들의 설문을 중심으로

姜勇仲*

◁ 목 차 ▷

- I. 서론
- II. 연구방법과 선행연구의 검토
 1. 연구방법
 2. 선행연구의 검토
- III. 전공 중국어 원어강의 관련 설문조사와 분석
- IV. 결론

I. 서론

본 논문에서는 중국어 원어강의의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공과목 중국어 원어강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전공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그 실태를 조사했다. 기존의 원어강의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영어에 국한하여 진행되었으나, 글로벌화의 심화에 따라 제2외국어 교과에서의 원어강의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2외국어 원어강의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의 전공 중국어 원어강의를 대상으로 기존의 문제점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현재 대학에서 중국어 원어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목은 일부 대학 교양과정의 기초중국어와 대다수 중어중문학과(유사 학과 포함)의 전공 수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과목 수 또한 매우 한정되어 있

*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다. 그러나 중국어 원어강의의 내실화와 활성화는 과목 수나 범위의 문제가 아닌 강의 효율 또는 합목적적인 교과과정의 개발과 운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어 원어강의의 언어학적 관점 또는 교수법에 입각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전공과목 영어 원어강의의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전공과목 중국어 원어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어강의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공과목의 중국어 원어강의의 효율성과 운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어 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울러 국내의 영어 원어강의나 기타 제2외국어의 원어강의 등과 궤를 같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본 논문은 '서론', '연구방법과 선행연구의 검토', '전공 중국어 원어강의 관련 설문 조사와 분석', '결론: 요약 및 제언' 등의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전체 연구를 개괄하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연구가 진전되었고 또 어느 정도 활성화된 영어 전공과목 원어강의의 이론과 실재를 선행연구의 사례로 삼아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중국어 원어강의의 원칙을 정리하고 개괄하기로 한다. 이 대비를 통해 아직 이론적 정립이 미비한 제2외국어 원어강의 시행의 주요 원칙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객관적 근거가 되는 설문조사 부분으로 필자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 관찰한 전공 중국어 원어강의 관련 설문 결과를 다룬다. 이 장에서는 전공과목을 이수한 적이 있는 학생들의 중국어 원어강의에 관한 생생한 의견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상관 문제들에 대한 제안을 서술했다.

II. 연구방법과 선행연구의 검토

1. 연구방법

대학의 전공 강좌의 원어강의에 관련한 교수 방법과 원칙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언어교수 일반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특히 제2외국의 강의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중요한 작업이다. 기존의 영어 중심의 원어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각광을 받아왔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제2외국어의 원어강의 시행에 수반되는 이론적 문제점을 대비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본 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공 영어 원어강의의 언어학적 교수적 의의와 실재를 선행연구의 소개와 검토를 통해 알아볼 것이며, 이를 기초로 중국어 원어강의의 원칙 및 영어 원어강의와 중국어 원어강의 간의 대비를 통해 본 실천적 방안 등을 대략적으로 모색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객관적 자료의 확보를 위해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200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추적설문의 결과를 정리 소개한다. 설문은 전공과목 원어강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수강한 학생들의 설문도 추가로 실시했으며 중국어 원어강의에 대한 생생한 의견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학교 학생들의 중국어 전공 원어강의 설문도 같이 소개한다.

설문 중 ‘교실중국어’의 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는 중국어 원어강의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교수자의 중국어 구사능력이나 그것의 객관적 매개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실중국어(Classroom Chinese)는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에서의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교실중국어는 중국어 원어수업에서의 도구라는 낮은 차원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교수자의 수업운동에서의 중국어 구사능력과 그들의 교육 연수 자격평가 및 실제적 중국어 구사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방법과 관련하여 수업의 모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도 관련되어 교실중국어의 의미는 아주 크다 하겠다.

2. 선행연구의 검토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중문학과가 개설된 지는 60년이 다 되어간다. 특히 한중수교 이래 20년간 중국어 교육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다. 그리고 양적 확대와 인적자원의 활발한 교류 및 중국의 보통화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교육하면서 크나큰 변화를 겪었다. 또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언어능력이 중시되어 교육의 수요에 따른 질적 변화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원어민 교수자 또는 내국인 교수자에 의한 전공과목의 원어강의도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듯 빠른 변화를 겪은 중국어 교육 분야에서 아직 전공 원어수업 관련 연구논문이 한 편도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반면 영어 원어강의에 대해서는 정이화(2000), 송승철(2000), 이연호(2005), 김명환(2007) 등에서 일반론을, 강소연(2004), 이부형(2010) 등에서는 공대의 영어강의 등에 대해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 논문들은 대학에서의 원어강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편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논문에서 전공 영어 원어강의를 직접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 부류의 연구논문들은 본 논문의 주제와 매우 유사하므로 당연히 선행연구로 삼아 다루어 볼 가치가 있다. 중국어 교육 연구에는 이러한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부류의 논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윤조원, 〈영문학 전공과목 영어 강의의 난제들〉, 《안과 밖》, 25권. 2008.

한영주, 〈내용중심 언어수업에 대한 고찰: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영어강의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제14권 1호. 2007.

조성은·황성수, 〈대학교 전공과목 영어강의 현황 파악 및 미래 방향 탐색: 영어 능력차이에 따른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71권. 2013.

여기에서는 이상 세 편의 논문을 개괄할 것이다. 비록 긴 편쪽을 해당 논문에서 그대로 인용했지만 국내에는 상관된 논문이나 연구 성과가 거의 없으므로 참고 자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윤조원(2008)에서는 영문과의 전공 원어강의에 대해 다방면에서 검토하였다. 주로 학생과 교수자 사이의 입장 차이와 난제에 대해 정리했으며, 해결책에 대해서도

적절히 지적하였다. 우선 1장 ‘전공과목 영어 강의’에서는 연구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학에서 전공분야, 특히 영문학 분야에서 영어 강의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분간이나마 혹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대세이고 또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말 강의에서와는 달리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영어 강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대면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을 모색하는 노력에 혹시 참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개인적 경험에 근거하여 몇 가지 두서없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92쪽)

이어 2장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수 과정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우선 “영문학과 관련 전공 수업 영어 강의를(우리말 강의와 비교할 때) 영어 어학능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예”로 답변 반면, “영문학 관련 전공 수업 영어 강의를(우리말 강의와 비교할 때) 전공분양 지식 함양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아니오”로 답하였다.(95쪽)

이외에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닌 듯하다. 학생 자신의 영어 구사력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 등이 문제의 핵심인 경우가 많다. 과제와 시험을 영어로 시행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어린 시절 영어권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상대적 열등감과 박탈감이다.(97쪽)

다음으로 3장에서는 ‘교수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선 교수자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표현과 전달의 한계이다. 문학작품의 섬세하고 미묘한 의미작용을 세밀히 설명해주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문학작품을 읽는 맛을 느끼게 도와주어야 하는 문학과목의 선생들로서는 때로 우리말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내용을 영어로 전달하고 게다가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정확히 전달한다는 것이 도무지 간단치 않은 일이다. 동시에 문학작품의 재미도 느낄 수 있도록, 즉 학업내용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100쪽)

그런데 전공 강의의 구체적인 교수법을 궁리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학생들의 영어능력이다. 솔직히 이것은 필자 개인적인 의견으로 영어 강의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회의하게 만드는 큰 문제다.(103~4쪽)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풀리지 않는, 그러나 극복해야 할 난점들'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영문과의 경우 영어 강의가 전공분야 학습에 도움이 될 여지가 다른 분야보다 더 많고, 영어 강의의 시행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여기서도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거나 학교당국의 정책을 그저 의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학과가 자율적으로 실천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공기초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우리말로 강의하여 지학년 학생들이 영어 텍스트를 읽고 소화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동시에 전공지식의 기반을 가능한 한 잘 마련하도록 한다면 좋을 것이다. 동시에 영문학과 학생들은(교양과목으로서의 영작문이 아닌) 전공 영어작문 과목을 수강하여 체계적인 글쓰기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3,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영어 강의를 수강한다면, 지금처럼 과목에 상관없이 교수의 영어 강의 의무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영어 강의 과목이 결정되어 원칙 없이 영어 강의가 개설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108쪽)

이상에서 본 대로 윤조원(2008)의 논의는 본 논문의 주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이 논문에서는 영문과에서의 전공과목에 대한 원어강의를 다루고 있으므로, 본 논문의 주제인 중문과에서의 전공과목 원어강의와 연구 영역이 완전히 합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제 요소들은 대부분이 중문과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 있다. 학생들은 원어강의가 어학 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공지식의 함양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수준에 자신감이 약하며, 심지어 학습전이나 과정에서 심한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교수자의 경우 원어사용의 제약으로 인한 표현과 전달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흥미를 유발해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느낀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자의 노력과는 별개로 학생들의 영어 능력 또한 객관적인 어려움이 된다고 기술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난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교과과정의 유기적인 배치로 교수자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수 환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한영주(2007)에서 다룬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영어강의에 대한 제언을 살펴보기로 하자. 필자는 논문의 주요 내용을 '문헌조사를 통한 내용중심 언어수업의 유형과 이론적 배경'으로 한정하면서 결론에서 아래와 같이 제언했다.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경우) 환경에서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영어 수업시간 이외에 그리 많지 않은데, 이런 환경에서 내용중심 언어수업은 영어를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영어가 세계 공통어로서 자리를 확고히 함에 따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영문 텍스트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검색·처리해야 한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영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Cummins의 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인지학습 언어능력)를 발달시켜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공과목의 영어강의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54쪽)

우리나라의 경우 내용중심 언어수업을 활용한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영어강의를 고찰해볼 때 드러나는 중요한 고려 사항 중의 하나가 성공적인 수업진행을 위해서 강의자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의 영어능력에 맞는 혹은 근접하는 수업교재나 자료를 선택, 조정해야 하고 수업내용을 잘 이해시키면서 동시에 영어의 4가지 기술을 통합해서 가르칠 수 있는 수업활동이나 과제를 고안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공과목 영어강의를 디자인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강의자에게 보람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154쪽)

EFL환경에서의 영어강의에 대해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대학본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수업에 학생 수가 너무 많으면 그룹토론 등의 수업활동이나 강의자와 학생 혹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제한을 받으므로 수업인원은 30명 내외가 적당하며 수업 전 활동 등의 숙제를 점검해줄 수 있는 조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차원의 writing 센터, self-access 학습센터 운영과 필요한 때에 원어민 교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도 요구된다.(154~5쪽)

이상의 한영주(2007)에서는 우선 EFL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므로 회화학습이나 텍스트의 심층적인 이해와 활용을

위해서도 의사소통중심의 교수법 보다는 인지학습 언어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중심 언어수업(content-based instruction: CBI)이 전공과목의 원어강의에 보다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리 여건으로 볼 때 교수자의 각종 부담은 더 크다고 보았으며, 학교의 지원이나 다양한 보조적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조성은, 황성수(2013)에서는 대학교 전공과목 영어강의 현황에 대하여 영어능력의 차이에 따라 설문을 진행했다. 우선 자료수집과 연구방법을 살펴보자.

2011년 10월 ~12월 2달간 대구/경북의 A대학 전공영어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공영어강의 수요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응답자는 총 224명이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2011년도 교내 전공영어강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178쪽) …… 본 연구의 대상자는 토익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800점 이상의 학생을 상(25.8%), 600점에서 800점 사이의 학생을 중(39.9%), 600점 미만의 학생을 하(34.4%)로 분류했다.(179쪽)

이어지는 연구결과 및 논의에서는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전체 학생들의 전공영어강의 수강 동기에 대한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영어로 개설되어서'였다.(180쪽)
2. 전공영어강의를 수강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어강의보다 얼마나 많은 학습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배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181쪽)
3. 한국어강의와 비교한 영어강의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약간 불만족하다는 비율이 그 다음이었고 아주 만족한다는 비율도 16.7%나 되었다.(181~2쪽)
4. 전공영어강의 수강 후 영어실력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51%가 향상되었다고 답했고, 영어능력이 상에 해당하는 학생일수록 향상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183쪽)
5. 영어의 네 가지 능력 중 어떤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영어능력이 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영어의 네 가지 능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모두 향상되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영어능력이 중, 하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듣기 위주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183~4쪽)
6. 한국어강의와 비교해서 영어강의의 교과내용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학생들의 66%가 70% 이상의 내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184쪽)

7. 전공영어강의를 수강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학생의 영어강의 학습능력 부족이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기 부족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다.(184~5쪽)

8. 전공영어강의의 미래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전공영어강의의 축소/현상유지/확대 비율, 전공영어강의 개설비율, 전공영어강의 학점 의무화, 전공영어강의 지원방안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다. 전체 61.5%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영어강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어능력이 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79.5%의 학생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했는데 영어능력이 중, 하에 해당되는 학생들일수록 이보다 감소된 비율, 57.5%, 56.2%의 학생들이 영어강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185쪽)

9. 전공영어강의 개설 비율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4년간 3-6과목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영어능력이 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경우는 4년간 6과목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185~6쪽)

10. 일정 학점 이상 전공영어강의를 의무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어능력 상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 39.5%가 영어강의 학점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고 영어능력이 중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 37.5%가, 영어능력이 하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엔 37%가 영어강의 학점의무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어 그 차이가 크지 않다.(186쪽)

11. 전공영어강의에 관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영어능력이 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영어강의에 대한 적합한 교육환경 마련'과 '학생의 영어강의 수강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각각 56.4%의 응답률을 보였고 영어능력이 중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학생의 영어강의 수강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62.5%, '영어강의에 대한 적합한 교육환경 마련'이 56.3%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186~7쪽)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영어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영어강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학생들이 전공영어강의에서 학습동기를 촉진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어 수업과는 다른 교수법을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영어구사능력과 영어강의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어강의 운영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켜 전공영어강의의 만족도 및 수업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학생들이

영어강의를 들을 준비가 안 되었다면 영어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지속적으로 영어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이 기울여진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강의를 통해 전공지식의 함양과 아울러 영어의 네 가지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87~188)

교내 전공영어강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영어능력을 구분하여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다른 우리말 수업보다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고 수강 동기는 다소 소극적이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영어로 개설되어서'라고 한 답이 많았다. 수업만족도, 수강 후 실력향상 여부, 한국어 강의와의 비교 등에서도 각각 흥미로운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한편 미래 방향 탐색에서는 전공영어강의의 축소/현상유지/확대 비율, 전공영어강의 개설비율, 전공영어강의 학점 의무화, 전공영어강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물었고 여기에서도 다양하고 주의할 만한 설문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원활한 원어강의 이수를 위해 '영어강의에 대한 적합한 교육환경 마련'을 요구했다.

이상의 세 논문을 개괄하면 전공 영어 원어강의는 일반적인 회화학습과 다른 이론학습까지 완수해야 하며, 학생들의 수강목적이나 영어능력이 각기 달라 여러 측면에서 준비되고 시행된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의 인용과 개괄에 보이는 바대로이나, 이상의 내용은 비록 영어가 제1외국어이고 중국어가 제2외국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언어교육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전공 중국어 원어강의에서도 상당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전공 중국어 원어강의 관련 설문조사와 분석

전공 중국어 원어강의는 교수자, 학생, 교수법, 교육효과 등의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 방면의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초적인 작업으로 중문과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몇 가지 방면에서 질문을 만들어 설문하였다.

전공과목 중국어 원어강의 관련 설문은 앞 절에서 소개했듯 아래와 같이 네 차례 실시되었다.¹⁾

- 1차. 2009년 중급중회화1 수강생 18명 대상 교수법 설문(원어강의 포함)
- 2차. 2009년 중급중회화2 수강생 16명 대상 교수법 설문(원어강의 포함)
- 3차. 2011년 1월 중어중문학과 전공 학생 43명 대상 원어강의 관련 설문
- 4차. 2013년 10월 중어중문학과 전공 학생 29명 대상 원어강의 관련 설문

1차와 2차의 설문에서 국제어 관련 첫 설문항목은 원어강의에서 희망하는 한국어 사용의 비율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 | |
|---------------|------------|------------|------------|
| 1차: ①0%(12.5) | ②10%(18.7) | ③20%(6.2) | ④30%(62.5) |
| 2차: ①0%(0.0) | ②10%(27.8) | ③20%(22.2) | ④30%(50.0) |

이 설문결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절반 이상이 한국어 사용비율을 30% 이상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비록 1차와 2차가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 모두 20% 이내이므로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다음으로 부득이하게 한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해 물은 결과를 살펴보자.

- | | | |
|------------------|--------------|-----------|
| 1차: ①단어 설명(31.3) | ②어법 설명(68.7) | ③기타(0.0) |
| 2차: ①단어 설명(16.7) | ②어법 설명(72.2) | ③기타(11.1) |

이상 두 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대체로 원어강의라 하더라도 단어나 문법 설명을 위해 20~30% 정도의 우리말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설문은 2011년 1월 중어중문학과 전공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원어강의 관련 설문이다. 그리고 4차 설문은 2013년 10월 중어중문학과 전공 학생

1) 1~3차는 A대학에서 시행했고, 4차는 다른 대학에서 시행했다. 다만 이 네 경우 모두 설문 당시 설문 참여자들은 전공 중국어 원어강의를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한 적이 있었다.

29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원어강의 관련 설문이다. 여기에서 설정한 문항들은 필자의 교양중국어 원어강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 이유는 양자 간의 대비를 통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전공과목 국제어 강의(중국어원어강의)의 시행에 필요한 매뉴얼은?(복수 응답가)

순위	2011년	2013년	내 용
1	37.83%	35.29%	국제어 강의에 맞게 제작된 교재
2	22.97%	13.72%	교실중국어 음성파일
3	20.27%	17.65%	교실중국어
4	18.19%	33.33%	국제어 강의용 교안

2011년 설문에서는 국제어 강의 매뉴얼에 대한 응답은 앞의 교양과목과 마찬가지로 국제어 강의에 맞게 제작된 교재가 수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세 항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13년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국제어 강의용 교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폭 증가했다.

2. 상기 매뉴얼은 언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순위	2011년	2013년	내 용
1	64.44%	60.71%	학교 학습 포털에 상시 제공
2	22.22%	21.43%	수업시간에 수시로
3	13.33%	17.86%	수강신청 기간

매뉴얼 제공 방법에서는 학교 학습 포털에 상시 제공이 수위를 차지했다. 이 항목의 경우 2011년과 2013년의 설문결과의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3. 교실중국어는 어떤 양식으로 구성되어야 할까?(복수 응답 가)

순위	2011년	2013년	내용
1	37.50%	29.41%	수업의 여러 상황을 분야별로 편집
2	35.93%	35.29%	수준별(초급, 중급, 고급)로 제작하여 제공
3	18.75%	15.69%	수업에 사용되는 간단한 표현 중심으로 편집
4	7.81%	19.61%	한어병음을 부기하여 편의성 도모

이 세목에서 교양과정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교실중국어의 한어병음 부기이다. 필자가 따로 조사한 교양과정의 학생들은 한자의 중국어 읽기가 취약해 한어병음 부기 요구가 31.81%였으나, 전공과정에서는 7.81%(2011년 기준)로 나타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2011년과 2013년간의 관련성은 1,2순위가 유사하게 분포하고 3,4순위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분포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4. 중국어 국제어 강의에 필수적인 요건은?(복수 응답 가)

순위	2011년	2013년	내용
1	27.52%	17.65%	수강인원 30명 이하 제한
2	17.43%	19.12%	이론과 회화의 Team-Teaching
3	14.67%	23.53%	원어민 강의조교(TA) 활용
4	14.67%	17.65%	상대평가 비율 조정(A+, A, B+, B가 90%)
5	13.76%	8.82%	주당 수업시간(현재 3시간)의 확대
6	11.92%	13.23%	국제어 강의 매뉴얼의 사전 제공

이 항목에서는 2011년과 2013년간에 '수강인원의 제한'과 '원어민 조교활용'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5. 중국어 국제어 강의에서 교사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는가?(복수 응답 가)

순위	2011년	2013년	내 용
1	43.10%	36.37%	정확한 전달(시험, 과제 등)을 위해 10% 이내로 우리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2	32.75%	38.64%	수준별 교실중국어에 한하여 원어 사용
3	15.51%	20.45%	학생들이 원어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므로 100% 원어로 진행
4	8.62%	4.45%	기본적인 중국어 표현에 한하여 원어 사용

이 항목에서 특이한 점은 전공강의라 하더라도 100% 원어로 진행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의 3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2011년과 2013년이 각각 1, 2 순위가 유사하게 분포하고 3, 4 순위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분포한다.

6. 전공과목의 국제어 강의(원어강의)의 시행에 대한 견해는?(복수 응답 가)

순위	2011년	2013년	내 용
1	44.28%	51.11%	회화 수업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24.28%	22.22%	국제어 강의용 매뉴얼과 교재가 있다면 시행해도 무방하다.
3	18.57%	13.33%	이론 과목의 경우 이해가 중요하므로 필요 없다.
4	12.85%	13.33%	3학년 이후에 국제어로 진행할 수 있다.

전공과목의 국제어 강의에서는 회화 수업과 연결하는 인식이 강하며 학년과는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두 차례의 설문 결과도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다음으로 전공 학생들의 기타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자. 우선 2011년 1월에 실시한 3차 설문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기타 전공과목의 중국어 국제어 수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이 설문항목에 답한 학생은 총 29명이다. 이들 의견을 주제에 따라 세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1] 학생 수준 고려, [2] 수업내용과 수업방식 관련, [3] 교과과정과 지원에 대한 의견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각 분류에 대한 개괄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1] 학생 수준 고려

1. 국제어 수업이 듣기에는 좋은 조건이고, 또한 학생들도 양질의 국제화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학생들의 수준을 너무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국제어 수업들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어라는 것이 개개인마다 자신의 중국어 실력이 모두 천차만별인데 현재 시스템은 매우 단순합니다. 만일 특정 수업이 있다고 하면 그 수업 내용을 매시간 거의 10%도 소화할 못하고 뒤쳐진다면, 물론 학생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학교에서도 다양한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서 교수님들이 다양한 시도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수업 커리큘럼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다수 학생들에게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국제어 수업이 진정 원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의 중국어를 보충해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중문과 학생다운 중국어 실력을 갖추게 되는 왕도라 생각합니다.

2. 회화수업을 국제어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수준에 맞게 수강생을 편성해야한다.

3. 국제어 강의를 늘리려 할 경우, 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또한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필수과목 및 글쓰기 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어는 철저히 '모국어' 의사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해야 그 진정한 효과를 가질 수 있기에, 학생들의 글쓰기, 말하기 능력 및 습관이 날로 저하되고 있는 요즘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말로 "선생님, 당나라 시대에 특별히 시라는 장르가 유행을 했던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와 같이 정중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을 국제어 (중문과에서는 중국어)에 반영해 연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학년이 되어 돌아보면, 외국인으로서 다른 언어를 배울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어 사용 생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예절, 정중함, 뉘앙스 등을 해당 언어로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어영문학과의 John Hostein (존 홀슈타인) 교수의 자문을 받기를 제안합니다. 오랫동안 한국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온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영

어문제는 결국 한국어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들어 매우 엄격하게 어휘선택 및 표현연습을 하도록 지도하셨고, 이것이 해외 인턴 및 교환학생 시기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제어 강의가 시대적으로 필요한 변화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라는 대학의 중심 활동에 있어 교사 및 학생에게 부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를 학교 측에 부탁드립니다.

4. 중국어 국제어 수업의 경우... 1. 수준별 강의 구성 2. 수강인원 제한 3. 강의 계획표와 교재 구성을 사전에 미리 공지 등의 상기 3가지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중국어 처음 배우는 사람도 따라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6. 수준별이라고는 하지만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쉬운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이를 완화시켜 정말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국제어 수업 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 전공자의 수준에 따른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회화 수업에서의 중국어 국제어 수업은 학생들의 언어 사용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성대 중문과 커리큘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만 수준별 학습에 따른 대안과 체계적인 교안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9. 국제어 강의를 들을 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수준별 국제어 강의 반을 만들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초, 중, 고급반으로 나누어 서서히 원어수업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0. (기초적인 회화 / 작문 능력이 부족한 채 원어 강의를 듣지 않도록) 모국어로 수업 받던 환경에서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자연스럽게 국제어 강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어 원어 강의 특성상 화교나 중국인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는데, 중국어 실력이 부족한 한국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1.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위하여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

람을 확실히 구분하여 팀별로 자주 회화 수업진행을 시행하게 하고 또한 시험에 불이익이 있게 되므로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

우선 다수의 의견을 차지하는 설문을 소개하기로 하자. 학생들에게 있어서 원어 강의의 부담요인은 원어 자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느끼는 직접적인 부담은 강의의 수준이나 수강생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급자 배려, 중급자 이상 고려 및 학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이 제시한 대안으로는 커리큘럼 다양화, 반 편성의 세분화, 강의계획표 사전 공고, 교재 구성 사전 공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획득 우선, 영문과의 원어강의 참고 등이다.

이 부류들에 속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전공과목의 국제어 수업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는 초급자 배려뿐 아니라 중급수업의 난이도도 적절한 수준 내에서 고려되기를 요망하며, 영문과와 같은 타과 진행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 수업내용과 수업방식 관련

12. 국제어 강의는 회화나 듣기, 문화 수업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그 경우에 수업시간에나 과제로 직접 말하는 기회가 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3. 국제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회화실력이 향상될 수 있으면 합니다.

14. 중문과 전공학생이라도 중국을 다녀오지 않으면 중국인 앞에서 말 한 마디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어는 배우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중국어 회화를 익숙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원어 강의라 하더라도 전공 새내기 때부터 꾸준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국제어 강의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수업은 회화수업이라 생각합니다. 수강인원을 줄여서라도 수강생들이 실제로 중국어를 수업 중에 자유롭게 최대한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중국어 수업에 관해서 1. 내용면, 2. 방법 면에서 두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내용 면입니다. 국제어강의는 우선 회화실력 향상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내용은 중어 및 중문 공부만을 중국어로 수업하기보다, 여건이 된다면 보다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수업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시사적인 내용이나 사회과학적 분야까지도 폭넓게 다룰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중문과 학생이 졸업 후 전공을 살려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중국 자체에 한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대학 중문과가 아닌 중국어 회화 학원 같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모든 학문의 중심인 만큼 어느 내용이든 그것을 중국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도 중문학이라 할 수 있으며 중문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여건 마련이 관건입니다.

둘째, 방법 면입니다. 국제어 강의를 기피하는 이유는 그 외국어 사용의 수업을 못 따라가리라 보는 것이 문제인데, 주요 시험 및 과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어로 전달하여 학생이 기본적인 수업의 틀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중국어로 수업하여, 못 알아들어 내용을 이해 못하거나 하는 부분은 스스로 물어봐서라도 공부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듣기보다 말하기를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외국어 특징이 듣기보다 말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학년과 실제 회화실력은 꼭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년제한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7.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러나 중문과 학생 이외에 중국어에 그 정도로 관심이 있고 중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을 열의가 있는 학생이 많을지는 의문이다. (수강인원 부족 우려)

18. 고전 문학 같이 어려운 수업을 제외한 고학년의 수업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9. 국제어로 수업하는데 찬성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수업은 거의 99%가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반면, 나머지 1%는 중국어로 수업하는데 이것이 진정 중문과의 수업인지 의심될 정도이다. 50 : 50으로 하면 그나마 나올 텐데 말이다. 한국어20:중국어80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0. 실생활에 쓰이는 구어표현도 많이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21. 실전 중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중국에 관한 역사나 정치, 경제에 관한 수업이 다른 전공에도 있다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3. 중문과가 아닌 학과가 중국어 국제수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4. 회화수업 외에는 다른 전공 수업들을 중국어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어 실력은 회화수업을 통해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 다른 이론 수업들 같은 경우 충분한 이해를 요하고 있고 중국어를 우리식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실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회화수업을 좀 더 실질적이고 실속 있는 수업으로 강화하되 기타 전공수업은 좀 더 깊이 있는 전공 지식들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25. 기타 전공과목 수업에서도 중국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면 중국어 수준이 늘긴 하겠지만, 그 수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국제어 수업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

이 부류는 주로 수업내용과 수업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회화 위주로 진행할 것을 희망했고, 시사 등 다양한 분야나 실전에 도움 되는 구어 표현을 많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수강 인원의 제한이나 발화 기회를 많이 달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시험과 과제공지는 한국어로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듣기 보다는 말하기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16번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교재의 암기 및 암기 내용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발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 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어강의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되기도 했다. 찬성의견을 낸 학생의 경우 원어강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수강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또 구체적으로 고전문학 등 어려운 수업 제외하면 고학년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들 의견을 제기한 학생들은 학업이나 수업 능력

이 갖추어진 학생들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급 이상자로 이들을 배려한 수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학생들은 회화만 중국어로 진행하고, 현재의 여건에서는 100% 원어 수업은 불가하다고 보았다. 일부 학생들은 또 회화, 듣기나 문화수업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기타 전공과목 중국어 수업 이전에 필요한 어휘 및 듣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교과과정과 지원에 대한 의견

26. 중문과 전공 수업들은 초급중회화를 듣고 나면 수준이 갑자기 어려워진다. 국제화 수업을 도입할 때에 중간 수준의 수업을 많이 개설해 주시면 전공 진입생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27. 중급중회화 과목이 국제어로 진행되므로 가능하다면 전공심화로 편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 학점경쟁 과열로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국제어 강의가 신설된다면 해당 수업만큼은 절대평가를 하거나 평가기준(과제 부여나 발표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9. 중국어 국제어 수업의 수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중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학생이나 2학년 진입생들은 무작정 국제어 수업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제어 수업의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석】

이 부류의 학생들은 원어강의의 다양한 개설로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으며, 세부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원어강의의 어려움을 고려해 절대평가의 시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수법 개발은 교수자의 수업준비나 수강생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학교 측의 제도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만 하므로 이러한 문제제기에 호응하여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 보이듯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중국어 국제어 강의를 대하는 진지함과 나름 대로의 통찰 및 기대가 절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원어강의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수준별 교안이나 강의 개설을 제안하기도 했고, 한국 학생들과 중국인·화교 학생 간의 수준을 고려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학생들이 국제어 강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여러 과목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한 일부 학생들은 가산점 부여, 수준별 강의 구성, 매뉴얼의 사전 제공을 주장했다. 그밖에도 적극 지지의견과, 이론과목에서의 국제어 강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어서 2013년 10월에 실시한 전공 원어강의 관련 4차 설문 결과의 결과를 보기로 하자.

7. 기타 전공과목의 중국어 국제어 수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간단히 기술하십시오.
이 설문항목에 답한 학생은 총 17명이다. 이들 의견을 앞의 2011년 설문과 마찬가지로 주제에 따라 세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 학생 수준 고려

1. 수준별 원어민 수업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강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4학년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2. 수준별 수업을 듣기 전에 반배치 고사를 거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3. 중국어 특기자 학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4. 수준별 수업이 중요합니다. 맞춤형 교안 등이 준비된 체계적인 수준별 수업이라면 좋겠습니다.
5. 원어민 강의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수준별로 다르게 하여 차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6. 중국어 초급자들을 위한 회화수업이 너무 적다. 초급 이후에 중간 실력자들을 위한 수준의 회화 수업이 없다.

7. 어떤 교수님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중국 학생을 가르치듯이 말씀을 빨리 하시고 시험을 서술형으로 내서 수업에 흥미가 떨어지고 배우는 것이 없다. 이런 경우 원어민 교수님들의 수업방식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분석】

이 부류 설문에서 보듯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배치 고사, 중국어 특기자 부분배제, 초급과정에 대한 배려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서 학생 수준 고려는 원어강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기타 전공과목의 중국어 국제어 수업에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것이다. 이들의 걱정인 수준에 따른 차별적 수업을 계획해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반시험 후 수강 신청을 받아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기타 전공과목 중국어 수업 전, 필요한 어휘 및 듣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중국어 특기생 이외 학생을 수준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수업내용과 수업방식 관련

8. 원어민 교수님이 계시지만 듣기 위주이고, '언어사용'의 환경 및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

9. 국제어 수업시간에 중국어 회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 국제어 수업에서도 텍스트 외에 현대 시류에 맞는 문화(영화, 드라마) 텍스트, 실생활에 쓰이는 내용을 포함해야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교재가 너무 틀에 박힌 중국어만 가르친다. 실제 중국에서 현재 사용되는 형식의 중국어가 필요하다.

12. 회화수업이 아닌 경우 원어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의 이해도와 학습흥미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분석】

수업내용과 수업방식에 관련해서는 문화(영화·드라마), 실생활을 반영한 내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재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리고 보다 많은 회화의 기회를 요구했다.

이점들에 대해서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수업내용과 관련된 플래시나 영화·드라마·다큐(5분 내외) 보기를 실시하고, 이 자료들을 학과 차원에서 공동으로 준비하여 공유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가 전혀 없는 수강자를 위해 수업 전 별도의 단기 코스를 개설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교과과정과 지원에 대한 의견

13. 경영학과의 영어강의처럼 체계적인 멘토링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14. 국제어 강의용 교안은 일찍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교실중국어는 한어병음 및 뜻이 잘 나와 있으면 좋겠다.

15. 1, 2학년의 경우 초급중국어 실력이지만 100% 원어강의가 많은 등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배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원어민 교수님은 중국어 특기자가 아닌 한국인 학생에게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한 수업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회화수업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방언사용 등은 삼가야 할 것이다.

16. 간혹 표준발음과는 좀 다른 언어를 쓰시는 교수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설문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시험, 과제 등의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말로 한 번 더 공지할 수 있는 조교가 있으면 좋겠다.

17. 3,4학년 전공과목은 원어민 교수님의 경우 100% 중국어로 진행하며, 회화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석】

제도적인 지원으로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거나, 원어민 교수자의 좀 더 세심한 준비와 배려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영어 원어강의는 학교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중국어 원어강의 개설 시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위의 2013년 서술식 설문조사를 개괄하면 영어로 전공강의를 하고 있는 경영학과의 멘토링 시스템과 비교하기도 했으며, 각각 수준별 반 편성 혹은 수업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선행학습 유무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 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원어민 교수자에 대한 언급도 많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수업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됨을 알았다. 이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V. 결론

제2외국어 전공과목 원어강의의 내실화와 활성화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려는 대학의 절박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영어 원어강의는 전공영역과 회화 위주의 교양영역에서 부단히 발전해왔다. 그러나 전공영역의 경우 학생들의 막연한 부담감, 교수자의 강의 매뉴얼 개발의 개별성과 분산성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시행착오가 끊이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제2외국어 영역의 원어강의는 영어 원어강의와 비교할 때 시행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아직 정형화되지 못해 향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전공 중국어 원어강의 또한 예외가 아니다.

각 대학들의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맹목적 추수(追隨)가 아닌 창의적인 외국어 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우리의 조건과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수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의 원어강의는 새로운 기회이자 시도이며 적절한 강의 모델을 만들어 대처한다면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학의 전공 중국어 원어강의 실태를 조사하고 확장의 여지가 있는 전공 심화과정

의 국제어강의에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적 검토를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대학 내의 중국어 원어강의의 운용사례에 기초하여 필요성과 적용성에 대한 정책적 평가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들에 대해 정책적 안목에서 교육 학습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많은 대학의 경우 중국어 원어강의에서 Team-Teaching이나 원어민 강의조교(TA)를 활용하는 사례는 보편화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는 Team-Teaching이나 원어민 강의조교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일차적으로 국제어강의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수업의 모델까지 제공할 수 있는 '수준별(초, 중, 고급) 교실 중국어'의 개발과 보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부수적으로 국제어강의의 특성에 맞는 교재의 유형도 개발해야 한다.

다른 제2외국어 전공과목 원어강의와의 연계성도 검토할 수 있다. 일례로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문과대학에서 진행된 제2외국어 학과의 전체 전공 국제어 강좌는 총 86개였다. 그중 58개 강좌를 외국인 교수가 담당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제2외국어 학과의 전공 원어강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교·강사의 원어강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구호로만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원어강의 매뉴얼의 개발과 특화된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다. 즉 비교적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신규 교과목 개설 방식을 완화하여, 원어강의의 경우 수준별, 단계별 맞춤형으로 개설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불어 등의 전공 원어강의의 과목을 상호 대응하는 방식으로 개설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 제2외국어의 교과목에 '시청각**'라는 과목이 있다면 다른 학과에서도 '시청각##'라는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다(여기서 **와 ##는 제2외국어의 명칭). 대학의 행정적 지원이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교과목 개설지원, 전공별 국제어 교안 및 교재 제작 지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전공과목의 경우 토론, 시사, 듣기 등의 수업으로 다양화하여 원어강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고, 학생들의 서로 다른 중국어 능력을 고려해 능력별, 단계별 원어강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언어요소 별로

보자면 회화수업에 1차적으로 원어강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원어강의 메뉴얼의 제공 여부 또한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서술식 설문은 [1] 학생 수준 고려, [2] 수업내용과 수업방식 관련, [3] 교과과정과 지원에 대한 의견 등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부분은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전공 중국어 원어강의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발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비록 기초적이기는 하지만 본 논문의 논의가 전공 중국어 원어수업의 안정화와 그에 따른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부록: 전공 중국어 원어강의 설문지

1. 전공과목 국제어 강의(중국어 원어강의)의 시행에 필요한 매뉴얼은?(복수 응답 가)

- ①교실중국어 ②교실중국어 음성파일
- ③국제어 강의용 교안 ④국제어 강의에 맞게 제작된 교재

2. 상기 매뉴얼은 언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 ①학교 학습 포털에 상시 제공 ②수강신청 기간 ③수업시간에 수시로

3. 교실중국어는 어떤 양식으로 구성되어야 할까?(복수 응답 가)

- ①수업에 사용되는 간단한 표현 중심으로 편집
- ②수업의 여러 상황을 분야별로 편집
- ③한어병음을 부기하여 편의성 도모
- ④수준별(초급, 중급, 고급)로 제작하여 제공

4. 중국어 국제어 강의에 필수적인 요건은?(복수 응답 가)

- ①국제어 강의 매뉴얼의 사전 제공
- ②이론과 회화의 Team-Teaching
- ③원어민 강의조교(TA) 활용
- ④주당 수업시간(현재 3시간)의 확대
- ⑤수강인원 30명 이하 제한
- ⑥상대평가 비율 조정(A+, A, B+, B-90%)

5. 중국어 국제어 강의에서 교사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는가?(복수 응답 가)

- ①기본적인 중국어 표현에 한하여 원어 사용
- ②수준별 교실중국어에 한하여 원어 사용
- ③정확한 전달(시험, 과제 등)을 위해 10% 이내로 우리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④학생들이 원어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므로 100% 원어로 진행

6. 전공과목의 국제어 강의(원어강의)의 시행에 대한 견해는?(복수 응답 가)

- ①이론 과목의 경우 이해가 중요하므로 필요 없다.
- ②회화 수업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③3학년 이후에 국제어로 진행할 수 있다.
- ④국제어 강의용 매뉴얼과 교재가 있다면 시행해도 무방하다.

7. 기타 전공과목의 중국어 국제어 수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간단히 기술하십시오.

【參考文獻】

- 강소연, <공학 전공과목의 영어 강의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 Vol.11, No.1, 2004.
- 강소연, 박혜선, <공학 분야에서의 영어 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에 대한 기초 연구>, 《공학교육연구》, Vol.7, No.1, 2004.
- 김두식, <영어전용강좌를 위한 “학술적 교실강의 영어”의 적절한 용법 연구>, 《언어과학 연구》, Vol.47, 2008.
- 김명환, <시평: 대학의 영어 강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안과 밖(영미문학연구)》, Vol.22, 2007.
- 남정미, <원어민 영어수업에서 느끼는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 의지와 영어성적과의 관계>, 《영어어문교육》 제17권 제2호, 2011.
- 문혜진, <2008년 영어강의 교수법 세미나: Lecturing in English: Tips & Expressions>, 성균관대학교 대학교육개발센터, 2008.
- 박기표, <원어민 교수에 의한 영어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Vol. 4 No.1. 1999.
- 박덕재, <교실영어의 담화 화용론적 연구>, 《인문사회과학논문집》, Vol.26. 1997.
- 박민정, <원어민/비원어민 교사의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평가-English Only Class에서의 비원어민 교사의 가능성->, 《인문학연구》, Vol.12. 2007.
- 박분주, <대학전공교육에 있어서 영어 원어강의의 효과: 원어민과 비원어민교수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비교>, 《현대문법연구》, 제69권. 2012.
- 박상욱, <영어교육에 있어서 교실영어 사용의 효과>, 《영어교육》, Vol.51, No.1. 1996.
- 박준언, <원어민 교수에 의한 대학생 의사소통 영어교육의 운영 결과 분석>, 《영어교

- 육》, 제52권 1호. 1997.
- 선규수·조초희(1999), 〈교실영어 사용 전략〉,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Vol.4, No.2.
- 성지희·길형석, 〈교실영어에 대한 대학교 1학년 영어학습자들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7, No.1. 2007.
- 송승철, 〈영어강의를 말한다: 영어수업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안과 밖(영미문학연구)》, Vol.9, 2000.
- 송영수, 〈대학 영어전용강좌(EMI)의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IPP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14, No.3, 2008.
- 윤조원, 〈영문학 전공과목 영어 강의의 난제들〉, 《안과 밖》, 25권. 2008.
- 이경희,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서의 원어민교수와 비원어민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 연구〉, 《영미어문학》, 제105호. 2012.
- 이부형, 〈공학 전공과목 영어강의에서 효율적인 교수법 연구〉, 《공학교육연구》, 13권6호. 2010.
- 이연호, 〈정치학 영어 강의: 국내 학생들의 영어수업〉, 《한국정치학회소식》, Vol.29, No.2, 2005.
- 이준식, 박정구, 강용중, 〈의사소통기능 제고를 위한 기초중국어 교수 모델 개발-기초중국어(1) 교수법 개발〉, 《2008년도 전공별 교수법 개발 연구논문집》, 성균관대학교 대학교육개발센터, 2009.
- 이창호, 〈중국어 교육에서 한국인 교수와 원어민 교수의 역할 분담 - 원어민 교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중국문학》, 제38집. 2002.
- 임정완,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대학생의 만족도 연구〉, 《현대영어교육》, 제13권 제1호. 2012.
- 장복명, 〈비원어민 영어 화자의 의사소통 책략 분석〉, 《현대영어교육》, Vol.5, No.2. 2004.
- 정이화, 〈영어강의를 말한다: 영어원강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제언〉, 《안과 밖(영미문학연구)》, Vol.9, 2000.
- 조득창, 〈교양 중국어 교육의 활성화와 원어민 교원 운용 방안〉, 《중국어논문총》, 제36집. 2008.
- 조성은·황성수, 〈대학교 전공과목 영어강의 현황 파악 및 미래 방향 탐색: 영어능력차이에 따른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71권. 2013.
- 한영주, 〈내용중심 언어수업에 대한 고찰: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영어강의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제14권 1호. 2007.
- 강용중, 〈초급중국어과정 원어강의용 '교실중국어' 개발〉, 《중국어언어연구》, 제29집.

- 2009a.
 _____, 〈교양중국어 원어강의의 새로운 전형 모색〉, 《중어중문학》, 제44집. 2009b.
 _____, 〈조선시대 역학서를 통해 본 중국어 분류어휘 교육의 의의-《노걸대》와 유해류
 역학서의 상언어휘를 중심으로〉,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12집. 2010.
 한국교육개발원,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1997.
 _____,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1997.
 _____,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영어 수업모형 및 교실영어》, 연구보고서.
 2000.
 _____, 《교실영어》, 연구보고서(자료집). 2000.
 劉 弘, 〈論對外漢語教師課堂用語的語言變異〉, 《語文學刊》, 第16期. 2007.
 金志軍, 〈對外漢語教師課堂用語的語言變異及其語用意義〉, 《科教文彙》, 第9期. 2007.
 姜麗萍, 《教師漢語課堂用語教程》,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6.

【中文提要】

本文爲了鞏固漢語雙語教學的基礎、提高教學質量，進行了對專業課漢語雙語教學的理論方面的檢討和對漢語專業課學生的問卷調查，並考察了韓國大學的漢語雙語教學現狀。至今在大學裏進行雙語教學的課程限於部分大學的選修課程的初級漢語和大部分中文系(包括類似的學科)的專業課，而且課程的數目也不多。爲了提高漢語雙語教學的效率和可運用性，需要收集並積累跨學科的人員的經驗和智慧。本文堅信經過這樣的過程，可以保障漢語教學的同一性，並且可以創造與英語雙語教學或者其他第二外語的雙語教學接軌的條件。

本文一共有四章。下面簡單地介紹各章的內容。第一章陳述了本文的研究目的和必要性以及概括整個研究的內容。第二章先介紹了本文的研究方法，再介紹英語專業課的雙語教學的理論和實踐，它是最早期在這一方面進行研究，並且達到了一定水平。本文以這些研究結果爲基礎，整理、概括漢語雙語教學的原則。通過這樣的對比，可以考察定位還沒完善的第二外語雙語教學實行的主要原則。第三章是本文的問卷調查分析，是筆者從2009年到現在，繼續進行調查觀察的有關專業課漢語雙語教學的問卷調查的結果。在本章可以看到上過專業課漢語雙語教學的學生提出的活生生的建議。最後，第四章概括本文研究

的結果，並陳述了針對有關問題的建議。

【主題語】

漢語, 雙語教學, 專業課, 中文系, 問卷調查

투고일: 2014. 1. 15 / 심사일: 2014. 1. 20~2. 5 / 게재확정일: 2014. 2. 10

